



들꽃편지 656

2023. 11. 8. 입동  
<https://cyw.pe.kr>

## 군맹무상(群盲撫象)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어느 날, 왕이 시각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신하들에게 코끼리를 끌어오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코끼리라는 동물이 앞에 있다는 말을 듣고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왕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코끼리의 생김새를 물어보았습니다. 상이를 만져 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는 큰 무처럼 생겼사옵니다.” 귀를 만져 본 시각장애인이 “아니옵니다. 코끼리는 곡식(穀食)

을 까부르는 키처럼 생겼사옵니다.” 그러자 머리를 만진 시각장애인이 “아니옵니다. 코끼리는 돌처럼 생겼사옵니다.” 코를 만진 시각장애인이 “아니옵니다. 코끼리는 절구공이처럼 생겼습니다.” 등을 만졌던 시각장애인이 “아니옵니다. 코끼리는 평상(平床)처럼 생겼사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이 만진 부분을 기준으로 코끼리의 생김새를 판단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군맹무상(群盲撫象) ‘자기 자신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판단한다’는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신학자들은 지적이고 교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수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심비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상가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영성가는 영감으로, 평신도는 기적이나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것으로, 심지어 사이비 교주는 자기 하나님이라며 뽐을 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제각각 자기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천명이면 천명에게 다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틀린 사람입니다.

♥가을 낙엽을 바스락 바스락 밟으며 최용우 올립니다.





한없이 넓은  
가슴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라

예장 이준우 글

## 스스로 잘난 놈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는 자는 빛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功)이 없고  
스스로 으스대는 자는 우두머리가 되지 못한다.  
고 했다. (노자24장)

무슨 긴 말이 필요하랴?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는 놈치고  
잘난 놈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 회개47 슬쩍해도 모르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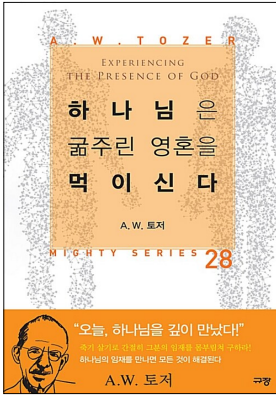
어느 분이 아파트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핸드폰 지갑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었는데 주인 찾아 주세요.”  
열어보니 핸드폰과 5만원권 현금이 가득하였습니다.  
“우와! 한 장만 슬쩍해도 모르겠네.”  
무심코 생각을 하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유혹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저 예수님을 모르는  
핸드폰 지갑을 주워 경비실로 들고 온 사람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찌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을 먹이신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28  
A.W 토저 지음/이홍복 옮김  
272쪽 15,000원 규장 2018

“그분과 나 사이에 있는 오늘의 만남이 내 인생의 향로를 완전히 바꾸어놓는 획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날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그분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찾는다.”

## 1.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라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창조주를 향한 거부하기 힘든 갈망이 숨어 있다. 이 갈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은 평안을 모르기에 인간은 이를 채우고자 끊임없이 애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마음속 큰 목표는 그분의 임재의 거룩한 위엄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거하며 온전한 안식을 누릴 때 그분은 크게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때 느끼는 기쁨에 필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가슴속에 깊이 묻혀 있는 큰 소원은 그분의 임재의 거룩한 위엄을 경험하는 것이다.

## 2.장애물을 넘어서는 용기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려는 욕구가 인류 영혼의 깊은 곳에 잠재해 있다. 하지만 그분께 나아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기란 역부족이다. 가장 주된 것은 인간의 '속량 받지 못한 본성'이다.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쏟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체험은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앞에 놓인 주요 장애물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름대로 장애물을 만난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위험한 상황은 '양심의 소작(燒灼)' 때문에 생긴다. 간단히 말하면 '도덕적 무감각'이다. 그리고 '영적 무기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를 듣고서도 부자연스런 영적 나른함에 빠지는 것이다. 도덕적 무감각과 영적 무기력은 우리가 영적 건강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두 가지 주요 재앙이다. 또 다른 문제는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마13:22)라고 부르셨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끝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영적인 일들과 세상 일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영적인 것들은 아주 점잖다. 그러나 육신의 일들은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말한다.

### 3.유일하고 완전한 안내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단계에 이르려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분의 존전에 이르는 것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련한 안내자가 필요하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어 중요한 영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적 성격 때문에 우리에게는 노련한 자격이 있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우리를 그분의 존전으로 담대히 이끌고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제사장이 바로 그런 안내자이다.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은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했다. 우선,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제사장은 가짜였다. 두 번째 조건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다. 제사장은 그가 드리는 제물의 피로 자기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고 단지 제한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셨다.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고, 이것이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그분의 존전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주실 수 있다. 그분께 이르는 길은 편하지도 않고 지름길도 없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지름길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완전한 안내자를 찾은 것이다. 그분을 따르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4.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요소, 즉 초월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말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개념들이 몇 개 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

의 임재의 본질은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소위 ‘초월적 세계관’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 초월적 존재는 고정되어 있고, 최종적이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기본적 진리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에게는 시작이 없었다는 것,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포함된다. 살아있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빛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히11:10)을 볼 수 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천국을 볼 수 있다.

### 5.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

우리는 성경의 본에 따라야 하며, 그것에 무엇을 보낼 수 있는 권세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하나님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출 25:40)라고 명령하셨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인류가 산에서 제시된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자기의 방법대로 자유를 꿈꾸는 자가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 그분을 마음 안에 모신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유인이다. 산에서 제시된 본을 따르기를 힘써라. 그것이 참된 자유의 길이다.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당신이 산에서 주어진 본을 따르면 자유와 행복과 완전한 안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전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붙들자. 가장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하나님의 책으로 돌아가자.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책에 도달하자. 이 책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자. 모든 것을 산에서 제시된 본에 따라 행하도록 노력하자. 당신의 믿음과 발걸음이 그분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참되고 순수한 자유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발견된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 제시하는 본을 따르면 그분의 임재를 맞보다 결국 이런 자유에 이르게 된다.

### 6.하나님 마음의 청사진을 보이다

구원의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를 즐거워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의식할 수 있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의식적 임재를 즐기고 있다면 구원의 근본적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회복해야 한다. 그분 앞에서 사는 법, 즉 그분의 분명한 임재를 맞보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흥과 부흥이 아닌 여타의 영적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 못하느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된다. 교회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그분의 나타나심이 줄어들고, 교회의 영적 상태가 좋을수록 그분의 나타나심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그분의 영광스런 나타남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오락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부흥은 교회가 주변 세상과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섰을 때 일어났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편해 할 정도로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으로 충만해야 한다. 사람들이 예배 참석을 위해 교회로 올 때에는 오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나타남을 기대하며 찾아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

### 7. 두 개의 휘장

구약의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첫 번째 방인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었다. 이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 사이에는 두 방을 나누는 휘장이 있었고, 이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다. 이 지성소는 '누군가 계신 곳'이었다. 일반 제사장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임재는 물론 거룩한 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즉 그분의 영이 떠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임재하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어 치워버리셨지만 우리는 손을 놀려 휘장을 꿰매어 다시 쳐 놓았다. 자기 사랑, 자기연민, 자기 신뢰, 그리고 자기만족 같은 자기 중심적 죄들로 엮어 만든 베일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아의 베일을 찢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원치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는 것에 만족한다. 자아의 베일을 찢어야 한다. 사랑 안에서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아에게 등을 돌려야 한다.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임재를 부담스럽게 여겨 뒷걸음질 치는가? 그것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 8. 영적 잡초를 제거하라

영혼의 정원에서 자라난 잡초를 보라. 그것을 뽑아내면, 진리가 어디서 자라나는지 보일 것이다. 잡초1) 그리스도는 우리의 편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어떤 이들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다르시다고 말한다. 이런 영적 잡초를 뽑아

내야 한다. 하나님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으신 성부도 우리의 편이시며, 하나님으신 성령도 우리의 편이다. 삼위일체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인간을 사이에 두고 성부와 성자의 뜻이 갈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잡초2)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는 다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다. 심판과 은혜가 신약성경에 모두 나온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도 심판과 은혜가 모두 나온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다. 잡초3)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은 그 정도가 다르다. 성부와 성자는 성자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에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보셨다. 잡초4)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다. 성삼위 모두 속량에 참여하셨다. 성부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진 제물을 받으셨다. 그 제물은 흠 없이 점 없이 드러진 어린양이신 성자이셨다. 온갖 이단들, 말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따라버리고 엉뚱한 것을 집어넣는 자들, 이상한 글을 써서 당신을 바보로 만들려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깨달았기 바란다. 의식할 수 있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는 성삼위의 협동의 결과이다.

### 9. 하나님 앞에 함께 누리는 교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물리적 의미에서 가까이 간다는 뜻이 아니라, 두 영적 존재가 직접적인 관계를 풍성히 즐긴다는 뜻이다. 이것은 마음속 깊은 곳끼리 소통하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이다. 천국에 이르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걷는 것이다. 믿음으로 걷는 것 말이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비법을 한 가지 말해주겠다. ‘버터내라’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권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24절)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하도록 계속 권면하고 설득하고 격려해야 한다. 또한 “모이기를 폐하지 말자”(25절)라는 것이다. 사도적 교회, 즉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출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원인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졌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함께 모이는 것이다.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행4:23)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또 다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다른 신앙인들이 내게 필요 없다고 느낄 때야말로 그들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때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앙인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을 신앙인 모임에 말씀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셨다. 히브리서 10장의 네 가지 권면의 요점은 이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돌아보자’, ‘모이기를 폐하지 말자’.

\*정리: 이재익 목사 (일본 니이가타교회)

## 시계와 시간

쓰레기장에  
구형시계 하나  
짜각짜각  
돌아가고 있었네.

깜짝 놀랐네.  
버려진 시간도  
무심코  
흘러가고 있었네.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덧글]

시작노트 / 고장나지 않은 시계도 버림받을 수 있죠  
더 좋은 시계를 샀거나 선물 받았거나  
시계가 싫증 났거나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행복**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리) 13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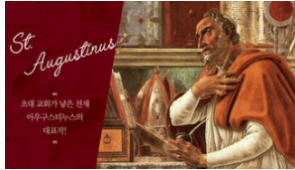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기쁨**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리) 13400원

## 그리스도교와 플라톤주의 비교



### 261. 구약성서에서 볼 수 있는 기적의 의식

하나님께서 수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창18:18) 약속의 진실성을 입증하면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모조리 늘어놓는다면 몹시 지루해질 것이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의 멍에를 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행하신 기적들 또한 얼마나 놀라웠던가? 그 백성이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그토록 자주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 262. 신을 부르는 주술에 대한 포르피리오스의 견해에서 보이는 모순

포르피리오스는 어떤 점진적인 도움을 받아 정령들이나 천사들을 맞이하여 신을 보기에 알맞은 몸이 되어야 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점진적인 종교의식이 영혼의 지성적 부분을 정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며, 진실로 존재하는 사물을 인식하는 데 알맞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 263. 악마들의 속임수 신을 부르는 주술의 정체

신성모독적인 의식으로 불결한 정결의식을 행하는 자들은, 천사들과 신들의 놀랍도록 사랑스러운 모습을 본다고 한다. 그것도 마치 정화된 영들을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고후11:14). 이들은 기만적인 의식으로 불행한 영혼들을 속여서 거짓된 신들을 받들게 하고 참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들을 등지게 만드는 환영을 보여준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끗해지고 치유되는 데도 말이다.

### 264. 포르피리오스가 아네보에게 보낸 편지

포르피리오스가 이집트인 사제 ‘아네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는 그 글에서 모든 악령들을 비난하면서, 악령들이 너무나 어리석어 제물의 연기에 이끌리므로 에테르(영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달 아래 대기권이나 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악령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 그 가운데 일부를 선한 악령이라고 말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계속)



## 햇볕같은 이야기



### 1. 사랑과 섬김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은 핵폭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빛의 에너지입니다. 만약 태양이 하루만 빛을 비추어주지 않는다면 지구는 단숨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차가운 얼음덩어리 행성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빛은 지구에 온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느낌은 '따뜻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온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단번에 옮겨버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마20:28)

성령님도 우리를 돕는(섬기는)보혜사 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라고 파송해 주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히1:14)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님과 천사의 섬김까지 받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저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며 지옥이나 대비하는 종교처럼 만들어놓고 그 안에 숨어서 아

무것도 안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을 받은 만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섬김'입니다.(7604)

## 2. 예배와 섬김

'섬김'은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같은 단어를 한글 성경은 '예배'로도 번역하였습니다. 영어로는 '서비스'(service)이며 서비스는 '남을 돕는 봉사'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예배'는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와 같습니다. 섬김과 예배는 자신의 자아(自我)를 죽이고 상대를 높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가치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앞선다면 그것은 섬김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둘을 분리하면 죽습니다. 우리동네 엄청 장사가 잘되는 허름한 칼국수 식당이 있는데 요즘 유행한다는 '레트로 감성'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멍니다. 맛도 별로인데 주인장의 '태도'(서비스)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는다느니 느낌이 드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식당에 몰려갑니다.

만약 교회가 섬김으로 예배하지 않고 온통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기업형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이리저리 나뉘고 찢긴 고린도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잘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메시지성경 고전12:26)

거룩한 예배는 웅장한 성전에서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 엄숙하고 완벽하게(?)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지체의 발을 씻어주는 서비스(service)입니다. (7605)

## 3. 노동과 섬김

'섬김'은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아바드)의 정확한 개념은 '타자를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그 타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시간과 노동력을 바쳐서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면서 돈을 받으면 그것은 '자본주의'이고, 돈을 안 받으면 '섬기다'가 되어 '(남을 위하여)일하다'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예배자가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기에 '섬김'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자신을 이득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세 과시'라고 생

각하거나 물질(현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사며니즘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부패한 종교들에서 기승을 부립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 숫자대로 권력화, 서열화 되어 있다는 것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인 것입니다.

‘아바드’가 명사로 사용되면 (아보다)가 되어 ‘일하다, 노동하다’란 뜻이 됩니다. 모든 노동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원훈이 ‘기도하며 일하라(ora et labora)’인 것은 그 이유입니다.

창2:5에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흙을 갈아(노동)을 하여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흙은 간다는 것은 노동으로 모든 피조물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빌어먹을 ‘자본주의’ 체제에 굴복하지 말고 ‘섬김’으로 타자를 살리는 생명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7606)

## 4. 나눔의 섬김

작년에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집과 재산은 상속자가 없어서 자동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집이 헐리고 동네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집을 누구누구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그 집은 그곳의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혼자 사시던 노 권사님이 자신의 빌라 건물을 하나님께 헌물한다는 유언을 남기셔서 사후에 교회가 빌라를 팔아 권사님의 이름으로 교육관을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그것을 한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승 가는 노잣돈이라며 죽은 사람 입에 엽전을 넣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저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세상으로 돈을 미리 보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마6:20)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현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교회에서는 이것만 강조함)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잠19:17) 즉, 구제가 그 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정말 최소한 아프리카나 제3국의 아이들을 한 명 정도는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3만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도 하늘 창고에 보내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하늘 창고는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7607)

## 5. 사라진 헌금통

수원에 있는 아무개교회의 현관문 앞에는 '쌀항아리'가 놓여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쌀이 떨어진 사람들이 와서 쌀을 가져다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구제 항아리입니다. 전에는 쌀을 항아리에 그대로 부어 놓았더니 통째로 비워가거나 바닥에 흘려 놓아서 지금은 한 봉지씩 담아 한 사람이 하나씩만 들고 가도록 해 놓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 풍요의 시대에 누가 쌀이 없어서 굶느냐 하는데, 의외로 많답니다.

성경에 2렘돈을 연보함에 넣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막12:41-44) 렘돈은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성경 배경사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이 과부가 넣은 연보함은 불쌍한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스러기를 모으는 구제 전용 헌금통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유럽 교회에는 '구제 헌금함'이 있다고 합니다.

구제헌금은 십일조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처럼 중요한 헌금이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금시초문? 그런 게 있었어? 도대체 '구제 헌금함'은 언제 없어져 버렸을까요? 아마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구제 헌금함이 잘못 전해져 '성미함'으로 바뀐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크게 칭찬하신 이유는 없는 가운데도 헌금을 했다는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구제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헌금을 했다는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더 힘든 다른 이들을 위한 '나눔'이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7608)

## 6. 땅에 싹은 보물

언젠가 어떤 교회에 가서 '나눔'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교인들과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왠지피플 하는 가운데 어쩌다가 제 귀에 "뭐가 있어야 나누죠. 비상 사 먹고 죽으려도 노랑전 한 푼 없네."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상(砒霜)은 엽전 한뼉 정도에 구할 수 있는 독초인데 그 엽전 하나가 없어서 비상을 못 사 죽을 수도 없다는 속담입니다. 옆눈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을 봤는데 차림새로 봐서는 엽전 한뼉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나눔'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보물을 땅에 싹아 놓는 자기중심적인 소비생활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흥청망청 쓰면서 남을 위하여 내놓는다고 생각하면 엽전 한뼉 없는 것입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반드시 좁과 동록으로 인하여 '내적 부패'가 일어납니다.(마 6:19) 물질적 풍요로 흥청이던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게 되면서 천사들을 동성애자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의 끝은 언제나 성적 타락으로 부패하여 멸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약 5:5)

땅에 쌓은 보물은 반드시 도적이 뺏어가버립니다.(마6:19) 소돔과 고모라 도시들은 그들의 풍요를 보고 그돌라오멜이 침략하여 재물과 양식을 다 약탈하고 그 자식들은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삶 때문에 유행병로 심판을 받아 멸망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돈 자랑하면 반드시 도적이나 사기꾼에게 노략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7609)

## 7. 가난과 섬김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내용이 약 2천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마25:35-40)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데 태만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라고 하십니다.(마25: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건축이나 십일조나 번성과 성공 같은 '번영 복음'의 메시지는 넘쳐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섬김과 나눔에 대한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빌게이츠재단을 통하여 그의 막대한 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제 3세계에 도서관 지어주기, 아프리카에 전염병 백신 공급에 이어 지금은 화장실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부(富)는 소유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되어야 비로소 축복이요, 생명의 길이 됩니다.

만일 재물이 이기적 욕심을 따라 향락 사치와 허영 또는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도리어 그 부가 화와 저주가 되는 동시에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계3:17)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12:20-21)

'가난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계속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것은 '가난의 영'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 안에 많기에 가난이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7610) ©최용우



여권 (사진:최용우)

## 여권

오늘 시청에 가서 지난주에 신청한 여권을 찾아왔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만드는 여권이고 아내는 두 번째 여권이다. 기간이 10년짜리이니 잘 쓰다가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 한번 여권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다.

나의 첫 여권은 1983년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선원이라 '선원여권'을 만들었다. 선원여권은 어느 나라든 맘대로 갈 수 있는 프리패스 여권이다. 그 만능여권으로 모두 12개국을 갔었다.

오래 전에 여권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기면 다시 만들지 뭐... 하면서 내비 뒀다가, 이번에 아내가 외국에 나갈 일이 생겨서 아내 여권을 만들며 내 것도 함께 만들었다.

나도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길까? 딱히 가보고 싶은 곳은 없는데, 프랑스 라뚜레프 수도원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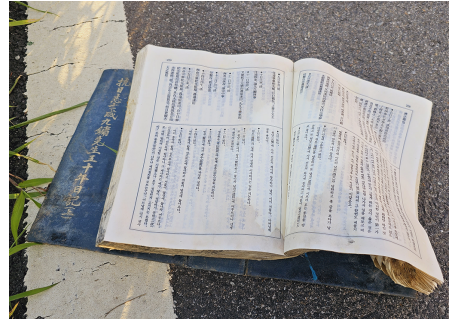
## 50년 일기

산책을 하다 보니 길가에 아주 두꺼운 책이 한 권 떨어져 비에 젖은 채 굴러다지고 있었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나는 책을 들추어보았다.

1500쪽도 더 되는 책의 제목은  
抗日志士成九鏞先生五十年日記(上)  
항일지사성구용선생50년일기(상)

성구용 선생이 누구신가?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 금남면 달전리에서 1905년에 태어나 1924년부터 1975년까지 50여년간 일기를 쓴 유학자이다. 그 아들이 아버지 일기장을 두 권의 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왜 책이 길에서 비를 맞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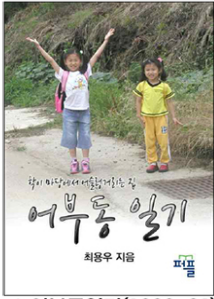
○갑자년(1924년) 정월 1일 -별나고 밤에 구름이 가득차다. 이웃 사람이 서로 모여 새해의 복을 비니 이는 사람들의 기쁨이다. 그러나 지금은 임금도 없어지고 나라도 망해 일본놈의 속국이 되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오랑캐들이 하는 짓을 경쟁적으로 본받고 성현의 도가 없어져가니 가슴 아픈 일이다.’

○경인년(1950년) 6월 27일(음력) -희미하게 별나다. 폭음소리가 산천을 진동하니 민심이 흉흉하고 공포에 싸여 농사 일을 못하다.’

○4월 14일(음력) -맑다. 여러 종족과 함께 선조묘에 참사하고 저물어 달전에 돌아오다’

일기를 몇 개 읽어보니 재미있다. 주로 날씨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가 많다. 익숙한 우리 동네 이름이 많이 나온다. 달전리와 대평리를 만나절이나 걸려서 오고 장을 보고 만나절 걸려서 집에 갔다니 대평장을 보려고 하루가 꼬박 걸렸구나. 지금은 자동차로 10분이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그때는 걸어 다녔으니 참 먼 거리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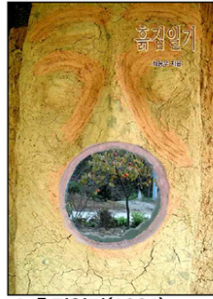
나도 평생 일기를 쓰면서 살았다. 그 일기가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판기로 두드려 쓴 일기는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13권의 책이 되었다. 핸드폰으로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이제는 사진과 함께 글을 쓰니 훨씬 더 글이 생생하다. 2015년부터는 1년에 1권씩 책으로 만드는 중이다.



1. 어부동 일기(20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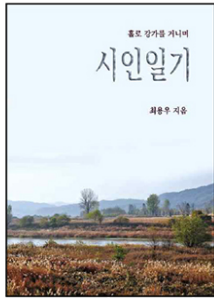
2. 달팽이 일기(2004-05)



3. 흙집 일기(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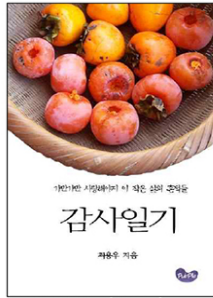
4. 용포리 일기(2007-08)



5. 시인 일기(2009-11)



6. 숙티 일기(2012-14)



7. 감사 일기(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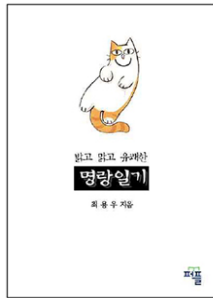
8. 햇빛 일기(2016)



9. 행복 일기(2017)



10. 풍경 일기(2018)



11. 명랑 일기(2019)



12. 바보 일기(2020)



12. 웃긴 일기(2021)



13. 여유 일기(2022)





## 속이 다 시원하다

운동을 하면서 보니 전봇대를 뽑아버린 큰길가에 커다란 돌덩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쪽 놓여있었다. 사람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무게의 돌이다. 보는 사람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우리 동네 큰길을 차도와 인도 높이가 같게 해서 좀 넓어 보이는 착시현상이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차들이 맘대로 인도를 넘나들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 너무 불안했다.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나무 화분을 쪽 놓았는데, 차들이 그까짓 것 하면서 다 밀어버리고 들이받아 부숴버리고 엎어버리고 차를 주차 시켰다. 그런데 이제 차들이 꼼짝 못 하게 생겼다. 설마 저 돌덩이를 들이박는 차들은 없겠지? 내가 그동안 본 시(市)에서 한 일 중 최고로 잘한 일이다. 박수우~ 짹짹



## 달개비 사진

무슨 글을 쓰면서 달개비 사진을 넣고 싶어 달개비 사진을 검색하다가 맘에 드는 사진이 없어서 그냥 내가 밖에 나가 한 장 찍어가지고 들어왔다. 오랜만에 찍는 김에 제대로 한번 작품 사진처럼 찍어 보았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일단 한쪽 눈을 감아야 한다.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이라는 유명한 사진 작가는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사진가에게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카~ 기가막힌 말이다. 왜 내 머리에서는 이런 멋진 말이 떠오르지 않는걸까?

단지 ‘선명’하다고 해서 잘 찍은 사진은 아니다. 잘 찍은 사진은 사진이 말을 걸어온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사진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냥 셔터만 누른다고 다 사진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소리

세종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최대 21일 동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달에 세 번 도서관에 가서 한 번에 5권~7권 정도 책을 빌려온다. 오늘도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 앞에 있는 교육부 청사 정문에서 여전이 엄청난 '상여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차에 증폭 나팔스피커 아홉 개를 붙여놓으니 멀리서도 그 소리가 들렸다. 날마다 교사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교육부 장관과 그 위 책임자들이 정말 '아귀(餓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다가 우리는 저런 인간들을 지도자라고 뽑았을까?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래도 귀를 막으면 더욱 큰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독재자들은 소리도 못 내게 탄압을 한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 최용우 서점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젯밤엔 생생한 꿈을 꾸었다. 큰딸이 카페를 하는 한쪽 구석에 <최용우 서점>이 생겼다.

그러니까 독립서점인데 서점만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딸이 카페 한쪽에 아빠의 책을 파는 작은 코너를 만들어 준 것이다.(꿈에서)

몇 년 전에도 <최용우 서점>에 대한 생각을 글로 쓴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책을 방바닥에 깔아 보았다. 약 70권의 책이 매트 하나에 딱 찼다. 아직 책이 안 된 원고가 한 30권 정도 있으니 부지런히 책을 만들면 한 100권 정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책을 직접 보면 더 사고 싶어진다. 지금은 책을 만들어 서점에 나가도 기껏 보름 정도 매대에 올려주고 안 팔리면 바로 반품해 버리니 책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다.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 ▲제615회 비학산285 (일출봉252m)

날씨가 오락가락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산을 챙겨 들고 스틱처럼 짙고 산을 올랐다.

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부터 갑자기 굉장한 폭우가 쏟아진다. 얼른 우산을 펼쳐 쓰고 달려 정상에 있는 일출정 정자 안으로 쏙 들어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비가 그치고 햇볕이 반짝. 아마도 비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다가 나를 발견하고 갑자기 물을 피부에서 놀래키려 했는데 내가 재빨리 피해버리니 재미없어서 그냥 멈춘 것 같다.^^ (2023.8.9)



## ▲제616회 축령산(622m장성)

아우 최용남과 함께 축령산 올랐다. 오전에 어머니 산소에 별초를 하고 맷돼지가 갈아 뭇개놓은 봉분을 다시 만들었다.

두 시간을 운전하여 내려왔으니 근처에 있는 블랙야크 100산인 축령산 방장산 추월산 백암산 중에 하나를 올라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우에게 말하니

“저는 운동을 안 해서 힘들어요ㅠㅠ”

그래도 가장 거리가 짧은 축령산(왕복 1km)을 선택하여 올랐다. 평일인데도 산에서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다. (2023.8.17)



## ▲제617회 비학산286 (일출봉252m) 2023.8.24

## ▲제618회 비학산287 (일출봉252m) 2023.8.3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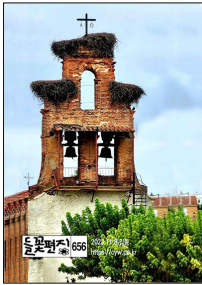
#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 ①입동(立冬)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니 사뭇 날씨가 차가워지고 새벽녘 안개가 잦아집니다. 운무 드리운 들녘에 벼를 벤 그루터기에 서리가 내렸네요. 안개 속으로 브이(V)자 모양으로 높이 날아오른 기러기 무리가 “우리 왔어요”하고 인사를 합니다. 두 강이 만나는 세종시 합강 주변은 우리나라 5대 철새 도래지입니다. 철마다 날아드는 철새 소리가 마치 잔칫날처럼 소란합니다.

시골에서 이즈음에는 추수를 마치고 노을 지면 마당에 마른 가지 지퍼 훈기를 불러놓고 남은 곡식 갈무리를 합니다. 이웃들과 허허실실 모여 막걸리나 따듯한 호박죽 나누며 한가해진 몸과 쓸쓸한 마음을 달랠니다.

## ②표지사진 이야기



인터넷에서 ‘도니’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2022년 가을 프랑스 생장에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33일간 800km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찍은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떠오른 모든 생각은 진리의 채에 걸려 보석보다 더 영롱한 삶의 빛이 되다.” 성당 십자가 종탑에 까치집이 주렁주렁 달린 사진 한 장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하셔서 이번호 표지로 모셔왔습니다.

##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여유일기-섬표찍는시간>(일기14) /컬러396쪽 23800원 2023.9.15.일 출간!

신간 <들꽃편지16권-고구마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9.1.일 출간!

73.들꽃편지15권-노란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8.3.

72.들꽃편지14권-작약꽃 /510쪽 30200원 2023.7.3.

71.들꽃편지13권-도라지꽃호 /510쪽 30200원 2023.6.3.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68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살림 드러내기 -2023.8월 재정결산

2023년 8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1004 고종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효숙 조정옥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새벽기도 성실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27분이 모두 1,000,000만원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3.11.8.일까지 7658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75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 문서2, 인터넷, 북방선교2, 선교사, 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새로 나온 책**

## 제16권 고구마꽃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16권 노란꽃호(컬러)  
최용우 편집 510쪽 30,2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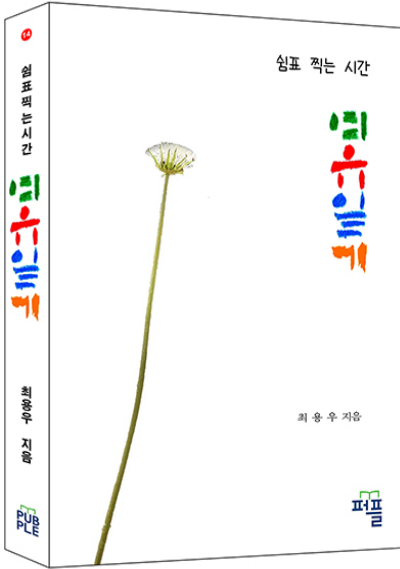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거리는 싱싱한 목상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 놓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 선교지입니다. 〈들꽃편지 제16권〉은 제562호(2015.11월)부터 제579호 (2017.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주보자료〉시리즈 전10권으로 주보 사역을 마무리하였고, 여러 가지 출판의 제약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2016년부터 〈교보문고 퍼플〉을 통해 최용우의 책을 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간과 더불어 기존에 출판했던 24권의 책도 모두 퍼플에서 재출판했습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5일  
새로 나온 책

리우일기

일기시리즈14

최용우 지음  
396쪽23800원(컬러)퍼플

서점에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뻔했다>(하완)라는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어? 내가 쓰려고 생각해 두었던 책 제목과 비슷한데...” 하면서 “하마터면 내가 쓸 뻔했네.”

자본주의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나처럼 느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빨리 ‘자기개발’이라도 해서 바쁘게 몸 부림치며 살라 하네. 이 ‘욕망 중독’사회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은 없고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바쁘게 사는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교묘하게 조작하네.

맘대로 놀러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들한테도 소홀히 하게 되는 바쁨이 과연 정상인가? 차라리 하루살이가 더 여유로운 것 같네.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도 병이다.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3.9.15. 카테고리 /종교 /기독교(개신교)  
책 사이즈 /신국판 152X225 A5 컬러옵션 /표지 컬러/내지 컬러  
표지/아르페 내지/백색모조 80g 페이지 /396 옆구리 두께 /18.8mm  
제본방식 무선 /무광 /날개\_A5\_신국판 판매가 /23,800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 ⑪ 바보일기

나는 멍청하고 멍청하여라. 나 홀로 바보 같고 비루히구나. -라던 노지(老子)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당대에 빛나고 똑똑했던 그 많은 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365편의 바보같은 이야기  
23,900원 394쪽(컬러)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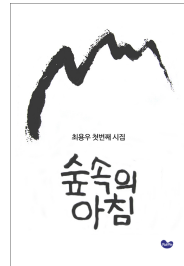
## ⑫ 웃긴일기

우리의 삶은 신비와 재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든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서 자세히 보고 쓴 365편의 은근히 배꼽잡는 웃긴 이야기  
23,800원 396쪽(컬러) 퍼플



## ⑬ 여유일기

맘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 들한테도 소홀히 하게 되는 바쁨이 과연 정상인가?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도 병이다. 여유롭게 천천히 쓴 365편의 이야기  
23,800원 396쪽(컬러) 퍼플



## ① 숲속의 아침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집을 나와 갈 곳 없이 방황하며 공원의자에서, 도서관에서, 산속에서 수첩에 끄적거리며 눈물로 썼던 詩를 모아 첫 번째 시집으로 묶었습니다.  
7,200원 138쪽 퍼플



## ② 설레임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담백하게 그려낸 쉽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심장이 벌떡거릴 만큼 감동적인 시집. 이 세상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곳인지 깨닫게 됩니다.  
6,700원 146쪽 퍼플



## ③ 어부동의 아침

그림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조용하던 작은 산골마을 어부동에 살면서 호숫가를 거닐며 쓴 맑고 밝고 환하고 시원한 詩. 기분이 밝아지고 세상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해집니다.  
7,600원 150쪽 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점)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mailto: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56호 \*발행. 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